

주체, 구조, 담론, 그리고 수학 학습

홍진곤*

인식의 주체와 대상만을 고려하는 인식론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역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식의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사회적 조건을 논의하는 구조주의와 기호학적 인식론의 철학적 기초를, 주체, 구조, 담론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기호의 의미란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의 망 속에서 기호들 사이의 관계에 의한 의미작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구조는 주체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구조적 질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체는 형성된다. 수학 학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은 주체에 의한 지식의 구성 이외의 다른 많은 논점들을 생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I. 들어가는 글

수학을 가르치는 것(teaching)이 단순한 훈련(training)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은 수학교육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 지식,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수학적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해'라는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수학 교수-학습 이론의 밑바탕에 깔릴 수 있는 철학, 특히 인식론적 탐구의 문제로 발전하여 왔다.

수학적 지식의 인식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분류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절대주의적 관점과 상대주의 또는 오류주의적 관점으로 입장을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그 하나이다(예를 들어, Ernest, 1991). 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는 수학 학습과 관련해서도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의 구분, 논리와 심리의 차이 등에 대한 다른 전망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한다. 또, '인식'이라는 행위를 그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로 나누어 생각할 때, 수학적 개념 또는 지식이 인식의 객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식의 주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부터 인식론을 분류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Hamlyn, 1978; 홍진곤, 1999). 이 때 수학적 지식의 획득 또는 구성이 객관적인 실재(reality)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수학 학습은 그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어야 하고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정도만 요구받게 되는데, 현대의 수학교육학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며 발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건국대학교 (dion@konkuk.ac.kr)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적 지식은 주체가 구성하는 것’이라는 데에 쉽게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학교육과 관련한 인식론적 논의가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체’나 ‘구성’과 같은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철학적 입장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스스로 수학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의 스펙트럼도, 수학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객관적인’ 지식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만 말하는 소박한 입장부터, 개개인이 구성하는 지식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존재론적인 구성주의의 입장까지, 양립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平林一榮, 1999).

또 ‘구성’이라는 개념 못지않게, ‘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인식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객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주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주체들은 다양한가, 다양하다면, 그 다양한 주체에 의한 인식은 객관성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그 때의 ‘객관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등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은, Kant에 의해 출발하였고 Piaget에 의해 ‘조작적 구성주의’라는 틀에 의해 설파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해체되고 재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핵심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주체

(subject), 구조(structure), 담론(discourse)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인식의 주체(subject)

주체 개념은 근대(modern) 철학을 그 이전의 철학과 구별하게 해 주는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의 철학이라는 것이, 실재하는 이데아(또는 신)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준다는 관점이었다고 하면, 근대철학의 비조라 할 Descartes에게는 지식을 누가 주었느냐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확실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확실한 지식에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자신에게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였다. Descartes의 ‘생각하는 주체(코기토, cogito)’¹⁾는 그런 점에서 ‘신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이고 ‘확실한 지식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독립된 근대의 주체는, 인식이라는 행위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인식이라는 행위의 대상 또는 객체와는 ‘다른 존재’가 되고,²⁾ 이것이 인식론적인 딜레마를 낳게 된다. 그것은 주체가 인식한 것이 실제 대상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치, 거울(인식주체)에 비친 내 모습(인식대상)이 실제 내 모습과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나 혼자서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인지 결코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거울에 비친 모습과 내 모습이 같다는 것을 판정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 지식이

1) 코기토(cogito)는 ‘생각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cogitare의 1인칭 형태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2) 근대를 중세와 구별 짓는 한 관점은, (객체인) 자연에 대한 (주체인) 인간의 지배이다. Galilei 이후의 과학 혁명은 믿을 만한 진리가 신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구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키워 나가게 했다.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과학 자신이 확인하고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인간 개개인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다른 딜레마도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인식의 주체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한다면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보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 딜레마도 앞서 말한 딜레마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주체의 인식이 갖는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그마가 아닌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축하기 위해 인식의 주체라는 범주를 신으로부터, 또 인식 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켰으나 오히려 ‘대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식을 진리로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식’을 ‘구성’으로 설명하는 Kant에 의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현대의 구성주의는 이러한 Kant의 인식론을 그 모태로 한다.

1. Kant, 구성하는 주체

주체의 인식이 대상, 사물 자체와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필연적인 진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Kant는 진리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려 했는데, 우선 그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물자체(thing in itself; noumenon)’를 ‘현상(phenomenon)’과 구별한다.

대상이 우리 감성의 모든 수용성에서 분리되어 그 자체로 어떤 성질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우리는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특유의 방식만을 알 뿐이다. (Kant, B59)³⁾

우리의 지식은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인식일 뿐이고 이러한 인식은 인식하는 주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진리이나 아니냐의 여부는 ‘대상’에 근거해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체가 판단하는 ‘형식’을 따져 봄으로써 알 수 있는 문제가 된다.⁴⁾

Kant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감성(sensibility)과 오성(understanding)⁵⁾이라는 두 능력에 의해 가능하다. 감성은 지각(perception)하는 능력이며 지각은 감각 자료(sense data)를 받아들여 직관(개념이 매개되지 않은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오성은 판단(judgement)하는 능력으로, 감성에 의해 형성된 직관을 정리하여 우리가 명제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인식에는 두 개의 줄기, 감성과 오성이 있으며, 이 두 줄기는 아마도 하나의 공통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뿌리에서 발생한다. 감성에 의해서 대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성에 의해서 대상들은 우리에게 사유된다. (Kant, B29)

이러한 감성과 오성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3) 이 논문에서 Kant의 순수이성비판을 인용한 것은, 통례에 따라 초판(1781)의 면을 A, 재판(1787)의 면을 B로 표기하였다.

4) Kant는 진리의 근거를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발상의 큰 전환이라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하였다.

5) ‘Understanding(독어로는 Verstand)’은 근래에 ‘지성(知性)’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참고한 순수이성비판의 역자 최재희의 전통적인 용어에 따라 ‘오성(悟性)’으로 표기하였다.

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러한 능력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인식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경험의 틀은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경험보다 앞서 가지고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과 시간을 Kant는 ‘선험적인 감성의 형식’이라고 부른다.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었다’와 같은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가 왔다’는 경험과 ‘땅이 젖었다’는 경험을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험보다 앞서 가지고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인-결과와 관계와 같은 판단의 형식이 ‘선험적인 오성의 형식’인데, Kant는 오성의 형식을 분량, 성질, 관계, 양상으로 나누어 12개의 범주⁶⁾로 정리하였다.

Kant가 보기에 인간의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Kant, B1). 그러나 그 인식의 보편타당성은 (인식 주체 외부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인식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감성과 오성의 ‘선험적 형식’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구성’하는 지식이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에 있어서의 질서와 규칙성은, 우리 자신이 집어넣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혹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근원적으로 질서와 규칙성을 자연 안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자연 중

에서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Kant, A125)

Kant에게 있어서 인식 ‘주체’의 의미는, Descartes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인식 대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생각하는 주체인 ‘정신’도 아니며 Hume⁷⁾이 말하는 것과 같이 관념이나 감각의 다발로 이루어진 ‘경험적 주체’도 아니다. 경험이나 감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며 보편타당성을 갖는 선험적 감성과 선험적 오성이라는 능력, 즉 ‘선험적 주체’이다. 그것은 경험적인 개인을 초월하여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주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을 대상의 ‘모사(模寫)’가 아니라 주체의 ‘구성’으로 설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 주체가 ‘인식’하는 능력은 대상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식의 법칙에 맞게 ‘구성’하여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Piaget, 조작적 구성주의

우리의 인식을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Kant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수학교육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Piaget에게 대부분 빚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iaget의 구성주의적 관념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뿌리를 갖는데, 그 ‘개념적’ 배경은 Kant의 철학적 전통⁸⁾에서 출발하며, 그 ‘경험적’ 토대는 아동들의 개념 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조사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Piaget가 Kant와 달랐던 것은, 인식 주체가 어

6) 12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분량: 단일성, 다수성, 전체성. 성질: 실재성, 부정성, 제한성. 관계: 실체-속성, 원인-결과, 상호작용. 양상: 가능-불가능, 현존-부재, 필연-우연.

7) 경험주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Hume은 대상을 지각하지만 스스로는 지각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Hume은 주체, 자아, 정신 등으로 불리는 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것을 인상과 관념의 묶음,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서양근대철학회, 2004).

8) Piaget의 철학적 인식론은 신칸트주의(neo-Kantianism)로 분류되기도 한다(Damerow, 1996, p.299).

떻게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인간의 지성(intelligence)⁹⁾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Kant가 ‘발달’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은, Hamlyn(1978, p.103)에 따르면, 그의 관심은 ‘이미 발달을 이룬 오성’이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술해 내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aget의 인식론은 근본적으로 Kant의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Kant에 따르면 인식 주체는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직관’을, 자신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성(개념)의 ‘형식’으로 포섭한다. 이것을 Piaget의 용어로 표현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직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동화(assimilate)’된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인간의 지식이 본질적으로 능동적(활동적, active)이라고 생각한다. 안다는 것은, 실재를 변환들의 체계 안으로 동화시킨다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실재를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나는 지식을 실재에 대한 수동적인 모사로 보는 관점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iaget, 1970, p.15)

인식론의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Piaget는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을, 유기체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한다. 이 때 주

목해야 하는 개념이 동화(assimilation), 조절(accommodation), 평형화(equilibration)이다. 유기체는 환경에서 사물을 받아들이며(동화)¹⁰⁾, 동시에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데(조절), 이 두 가지 작용은 유기체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이 항상성(homeostasis)을 이루도록 기능하는 것과 같다.

Piaget는 학습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학습은 인지 구조(schema)를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적용을 해 나가는 일종의 평형화 과정이라는 것이다(Hamlyn, 1978, p.96). 이 과정에서, 인식 주체가 능동적으로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행위하는 것, 활동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또는 그 대상과 함께 수행될 수 있는 변환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를 안다는 것은, 더도 덜도 없이 적합하게, 그 실재에 상응하는 변환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변환들의 체계는 실재의 변환과 어느 정도 동형이다. 지식을 구성하는 변환적인 구조는 실재의 변환들을 모사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단지, 경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능한 동형인 모델일 뿐이다. 지식은 그래서, 점점 적합해지는 변환들의 체계이다. (Piaget, 1970, p.15)

Piaget의 ‘활동’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중요한

9) Kant의 경우에 이것은 오성(understanding)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0)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예이다.

것은 그것이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는 점이다.¹¹⁾ 그것은 Dewey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보는 것(trying)’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Dewey에 따르면,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결과를 당하는 것으로 계속되어 들어갈 때, 또 행위에 의하여 생긴 변화가 우리 내부에 일어난 변화에 반영되어 되돌아갈 때, 그 때 비로소 막연한 사태의 흐름이 의의를 지니게 되며, 그 때 비로소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난다(Dewey, 1916, p.219).”

Piaget에게 Dewey의 사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우정호, 2000, p.229) 것도 이러한 맥락인데, 즉 인식 주체(유기체)와 대상(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정(coordination)이 지식의 발생, 발달, 구성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Piaget는 자신의 발생적 인식론을 ‘조작적 구성주의(operational constructivism)’라고 부른다(Beth & Piaget, 1966).

Piaget의 조작적 구성주의는, 지식이 인식 대상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인식 주체 또한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틀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Kant적인 ‘종합(synthesis)’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작적 구성주의는, 인식 주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조작적 구조를 구성하도록 하는 활동(activity)’이 인식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며, 또한 인식의 객관성의 원천¹²⁾이라고 설명한다.

Piaget로부터 우리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이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면’ 성공적인 수

학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그것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또는 겪는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활동과 그 결과가 다시 조정되는,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인지 즉각적으로 판단되기는 오히려 어렵다. Kant나 Piaget와 같은 인식론적 논의는 수학 수업에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처방적 이론으로 기능하기보다 올바른 학습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서술적 이론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성의 주체’를 논하는 이들의 맥락이 강조하는 지점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다. Kant의 경우에 그것은 지식의 ‘객관성’이었고, Piaget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 지식의 ‘발생’이었다.

III. 구조주의(Structuralism)

Kant와 Piaget의 인식론은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주체’의 개념을 확립했으나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전이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확립한 ‘객관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Piaget가 말하는 조작, 즉 가역적 사고는 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 논리적인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객관적 지식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Kant의 ‘선험적 형식’ 또한 예컨대 그것이 범주라면, 그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사실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11) 이에 비하면, ‘행동주의(behaviorism)’에서 생각하는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나, 또는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강화되는,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당하는, undergoing) 행동이다.

12) Piaget는 인식의 객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적 주체(psychological subject)와 구별되는 인식적 주체(epistemic su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인식적 주체가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의 원천이 ‘행동의 일반적 조정’이라고 설명한다(Beth & Piaget, 1966).

때 빠뜨릴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개인이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식 체계’에 그 개인이 입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지식인가, 또는 무엇이 참이고 참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IV장¹³)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간주관적인(interpersonal)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식이 가져야 하는 ‘객관성’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보면 Kant와 Piaget의 인식론은 모두 인식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 즉 개인과 그가 대면한 세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파악하는 근대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인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 개인으로서의 인식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인식론적 모델이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이란,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인식 주체와 다른 하나 또는 여럿의 개인적 주체를 생각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또는 그 사회의 ‘구조’를 일단 염두에 두도록 한다. 그러한 관점이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조주의(Structuralism)’인데, 여기에서 ‘구조’는 ‘주체’에 선행하는 것이며, 의미나 판단 또는 사고는 ‘주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¹⁴⁾

1. Saussure, 언어의 구조

구조주의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언어활동(langage)’과 ‘기호체계(code)’의 범칙으로 이루어진 상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주려는 일종의 방법론이다(김형효, 1989, p.61). 현대문명이든 원시문명이든, 과학적 사고든 신화적 사고든, 모두 언어와 기호의 문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회적인 삶은 인간의 무의식, 역사의 무의식 세계와 같은 논리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주의적 탐구는 그것이 인류학(Lévi-Strauss), 문헌학(Foucault), 정신분석학(Lacan), 정치경제학(Althusser) 등의 어떤 출발점을 갖더라도 모두 언어학을 학문적 방법의 공통분모로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주의적 언어학은 Saussure에게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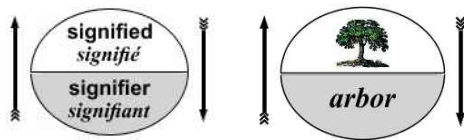
Saussure의 언어학을 구조언어학(linguistique structurale)이라고 부를 만큼, ‘구조화된 전체’로서 언어를 생각하는 그의 아이디어는 무엇보다도 기표(signifiant)를 기의(signifié)¹⁵⁾에 결합시키는 관계가 자의적(arbitraire)이라고 설명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Saussure, 1972). 언어나 기호가 사물을 지시하거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에 반하여 Saussure는 기호(sign)와 지시체(referent) 사이에 어떤 유사관계나 일치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나무’나 ‘arbor’와 같은 기호는 실제 존재하는 나무의 ‘이

13) Wittgenstein의 ‘사적언어 논증’ 참고.

14) 사실 ‘구조’라는 개념은 너무도 폭넓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주의’라는 용어도 매우 다양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Piaget도 ‘구조주의(Le Structuralisme, 1968)’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 Piaget의 입장은 ‘인식적 주체가 구성하는 구조’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구조주의’의 의미는, Lévi-Strauss, Lacan, Foucault 등의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의 자각이 아니라 주체가 구조의 관계그물 속에서 소멸 또는 해체되는 그런 관점을 일컫는 것이다.

15) Saussure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le signe)로 구성된 조직체계이며, 기호는 ‘개념’과 ‘청각적 이미지(영상)’의 결합이다. 이 때 그 개념적 면을 시니피에(signifié; signified), 청각적 영상의 면을 시니피앙(signifiant; signifier)이라고 부른다.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은 국내에 소개되면서 所記와 能記, 기호내용과 기호표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현재에는 記意와 記標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뜻’과 ‘표기’ 정도의 의미로는 본래 용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름'이며, '나무'라는 기호와 실제 나무(지시체) 사이에는 대응, 일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Saussure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라는 특정한 기표와 실제 나무라는 특정한 기의가 결합되는 것에는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라는 기표가 실제의 나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다른 기표들과 구별되는 '차이(difference)'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나무'라는 기표는 '가무'나 '사무' 등의 기표와 다르고, 그 다름에 의해서 고유한 가치¹⁶⁾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표들 사이의 관계 그물, 즉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 Saussure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그림

Saussure는 또한 랑그(langue, 언어)와 빠롤(parole, 화언)을 구분하며, 랑그와 빠롤이 합쳐져서 언어활동(langage, 랑가주)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랑그는 언어활동의 사회적 측면, 제도화된 객관적 측면을 가리키며, 빠롤은 랑그라는 객관화된 제도 안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유를 갖고 표현하는(어떤 말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발음, 발성하는가 등) 언어활동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¹⁷⁾ Saussure는 랑그야말로 언어학이 다루는 대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랑그가 개인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랑그는 랑가주의 사회적 부분이며, 개인의 외부에 있으므로 개인 혼자서는 창조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랑그는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한편 개인이 랑그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습득해야만 한다. (Saussure, 1972, p.21)

Saussure의 언어학이 구조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만큼 탈근대적이었던 지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데에 있다. 개인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의 체계인 랑그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의미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랑그의 체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참이나 거짓이나 하는 판단 또한 개개의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며, '주체'가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의 구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의미나 사고, 판단의 '객관성'은 주체의 외부에 있는 언어라는 객관적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

2. Lacan, 형성되는 주체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선택적인)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 사고, 판단, 해석 등의 모든 의미 작용(signification)은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호의 의미가 기표들 사이의 관계(차이)에 의해 정해지는, 그런 언어(langue)는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주어지는 것이다. Saussure가 설명하는 이와 같은 언어체계의 근본적인 규정성을 Lacan은 무

16) Saussure는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기호의 '의미'를 '가치(value)'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가치'라는 표현은 그것이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기에 더 적절한 면이 있다.

17) Barthes는 기호학에서는 기호체계(code)가 랑그에, 전달내용(message)은 빠롤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김형효, 1989, p.63).

의식의 차원까지 확장한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 인간에게 고유의 관계들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은 자연이 대립의 테마들로 배치된 소재들로 제공한 모든 것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은 시니피앙들을 제공하며 이 시니피앙들은 창시적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그것에 구조와 모델을 부여합니다.
(Lacan, 1973, p.37)

주체의 사유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는 주체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자(Autre)가 지배하는 언어적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자의 질서에 귀속되는 주체는, Descartes의 코기토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코기토의 반성적 사고는 거울에 비추어보듯이 자신을 대상화하여, 반성된 형태로(즉 ‘생각하는 것(res cogitans)’으로서) 자신이 존재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Lacan에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존재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 오인(méconnaissance)된 자아(ego)’이다.¹⁸⁾

주체의 사유는 항상-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망속에서 이루어지는데, Lacan은 선형적 질서로서 주체를 벗어나는 그러한 타자의 영역을 상징계(symbolique)라고 부른다. 상징계는 시니피앙의

연쇄적 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데, 주체는 이러한 상징계의 주인이 아니라 시니피앙의 연쇄와 의미화의 지속을 위한 언어적 파생물이다. 즉, 주체는 타자의 장인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Lacan은 이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한다.¹⁹⁾

이러한 상징계는 보통 언어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Lacan의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시니피앙이 상징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Saussure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결합된 ‘기호’를 언어의 최소 단위로 보았지만 Lacan에 따르면 언어의 최소 단위는 기호가 아니라 시니피앙이며, 시니피앙이 의식적, 무의식적 담론을 형성하고 주체를 발생시키는 근본 요소이다.

Lacan은 언어의 의미가 기호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Saussure의 기본적인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Saussure의 기호 모델(그림 1))을 $\frac{S}{s}$ 와 같이 수정하여 나타낸다. 여기에서 대문자 S는 시니피앙을 나타내며 소문자 s는 시니피에를 나타내는데, Saussure의 모델에서 분자와 분모가 바뀐으로서 시니피앙의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또, Saussure의 모델에서 기표와 기의를 둘러싼 원과 화살표도 제거되었는데, 이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단 정해지면 기표는 기의를 ‘표시’하기 때문에 기표를 통해 기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Saussure의 입장과 다른 지점을 나타낸다. Lacan의 모델에서 S와 s 사이에 있는 바(bar, —)는, Saussure

18) Lacan에 따르면 “정신분석은 말하는 주체에 관한 과학이다. 주체는 자아가 아니다.” (김석, 2010, p.112에서 재인용)

19) Lacan이 설명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아이는 처음에 ① 자신이 어머니의 남근(phallus, 어머니의 욕망을 상징)이라고 믿다가, ② 실제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상징계의 대리인)임을 깨닫고, ③ 아버지의 남근이 속하는 상징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것은 ‘남근이 되려는 욕망’에서 ‘남근을 가지려는 욕망’으로의 변증법이며, 남근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기표화되는 상징계의 구조 안에 자신을 주체로 자리잡게 하는 것, 이것이 주체화의 순간이다(김석, 2010, pp.136-140).

의 모델에서 그것이 기표와 기의 사이의 안정적인 결합을 상징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정반대로 장벽 또는 분리선의 역할을 하고, 시니피앙은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시니피에는 분리선에 가로막히면서 시니피앙 밑으로 계속해서 미끄러져간다(*glissement; sliding*).

예를 들면,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각이 직각’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수직’이라는 말의 ‘의미’인가? 그러나 이것은 ‘수직’이라는 기표의 기의라기보다는 다른 기표들의 결합으로 대치된 것일 뿐이다. ‘직각’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면 ‘두 각의 합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합동’이라는 기표의 의미를 알려면 또 다른 기표를 사용해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의가 아니라 ‘기표의 연쇄(*chaîne signifiante*)’일 뿐이다. 이와 같이 시니피앙은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시니피에에 이르지 못하고, 언어의 체계는 이러한 시니피앙의 연쇄, 시니피앙의 관계일 뿐으로 그 자체로는 비의미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언어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만들어져야 하고, 의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리선을 넘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결합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Lacan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임시적으로 묶어주는 지점을 고정점(*point de capiton*)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의미의 전달자인 주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정점은 절대적인 지점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기표가 언제나 하나의 기의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⁰⁾ Lacan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 안정적인 의미화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즉, Saussure가 기표와 기의의 분리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의미의 안정성을 강조했다면,

Lacan은 기표와 기의의 단절과 의미의 다의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석, 2010, p.135).

고정점이 주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발화하는 주체가 기표들의 구조 또는 질서(상징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주체가 따라야 하는 언어적 질서는 주체의 외부에 있는 ‘타자(*Autre*)’²¹⁾이며, 언어에 의해 형성되는 무의식이기도 하다. 무의식이 전달하는 기표를 통해서 주체는 형성되며, 기표의 질서라는 타자를 통해서 개체는 인간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다.

IV. 담론(*discourse*)과 지식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변별적인 차이로부터 알 수 있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설명이 갖는 난점은, 어떤 기호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기호가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학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전에 ‘학생에게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그 외국인인 ‘학교’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학생, 교육, 기관 등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 단어들을 다시 사전에서 찾아 봐야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 Lacan은 이를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고 표현했지만, 이와 같이 다른 기호를 통해서 기호의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고전적인 관점이라면, ‘학교’의 의미는 학

20) 예를 들어, ‘학교’라는 기표는 사전적으로는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감옥’을 뜻하기도 한다.

21) Lacan은 상징계를 지탱하는 구조의 인격화된 지점을 대타자(*Autre*)라고 부르며, 자아가 동일시하는 타자화된 이미지를 소타자(*autre*)라고 부르는데,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교를 직접적으로 가리킴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리키는 것이 학교인지, 혹은 건물인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인지 매번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지시적 정의’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 등의 단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로부터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의미,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여러 주체이다.

1. Wittgenstein, 의미는 사용이다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단어의 의미는 랑그라는 전체적인 규칙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지만, 개개의 단어가 갖는 의미를 모르면서 어떻게 랑그를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는다. Wittgenstein은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이 완결되고 불변적인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가 가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개념이 ‘언어게임(Sprachspiel; language game)’이다.

Wittgenstein이 언어를 체스와 같은 게임에 비유하는 것은 그것이 규칙을 따르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지만, 그 규칙은 어느 정도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는 데에 주목한다. 교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규칙과 저잣거리에서 사용되는 규칙,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규칙은 서로 상당히 다르며,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한 요소만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가능한 표현의 복잡성이 확대되면서 어른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

준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을 Wittgenstein은 ‘언어 게임’으로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언어가 하나의 완전한 의사소통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은 언어가 정적인 상징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분리할 수 없는 역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행동하면서 익히는 것이므로, Wittgenstein이 설명하는 이른바 ‘삶의 형식(form of life)’은 언어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Wittgenstein은 ‘언어게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게임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으로 그것을 설명한다. 다양한 언어게임에는 그 모두에 공통된 특징은 없고 그저 교차하는 유사성만 있을 뿐이다. 하나의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들은 그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질주의의 오류이다.

초기의 Wittgenstein은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지시체가 대응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기의 저작인 ‘철학적 탐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유사성의 아이디어로, 하나의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들 모두에 공통된 보편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Wittgenstein(1953, §43~44)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 사용(use, 용법)에 있다. 이때 단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이는 언어게임의 맥락을 의미한다. 우리가 ‘노통(Nothung)’²²⁾이라는 단어를 그 칼을 직접 지칭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노통’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은 그렇게 지시 관계를 포함하는 언어게임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노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22)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지크프리트의 보검.

있어서는 그 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조차 중요하지 않다. 즉, 하나의 단어는 그것이 언어게임의 일부로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단어와 대상의 대응 관계도 그러한 언어게임의 다양한 맥락의 하나이고, 우리는 언어게임에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단어를 그것이 사용되는 언어게임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게임에 참여한다는 것, 즉 언어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여 언어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예컨대 어떤 개인이 규칙을 제대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따르는 척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 때문이다.²³⁾ Wittgenstein에 따르면 단어의 사용 규칙,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모두는 언어게임의 '실행'이 가져다 준 결과이며,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단어의 사용 규칙을 암기하여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되는 언어게임에 참여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쓰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규칙은 이미 언어게임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단어의 의미는 그저 그것이 사용되는 언어게임의 맥락에서 오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고, 언어게임은 그 외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규칙 이전에 언어게임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규칙'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사적언어(Privatsprache) 논증'으로 알려져 있는 이 논변을, Wittgenstein(1953, §258)은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감각을 느낄 때마다 달력에 'E'라고 적어 넣는 게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가 느

낀 감각이 'E'인지 아닌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은 이른바 '사적언어'이다. 이러한 언어게임은 가능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감각을 느껴서 달력에 'E'라고 적어 넣을 때 그것이 전에 'E'라고 명명했던 바로 그 감각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유일한 기준은 자신의 기억일 텐데, 그 기억의 올바름은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E'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고, 따라서 진위 여부에 대한 '공적 검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참인 것'과 '참이라고 믿는 것'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Wittgenstein이 말하는 언어게임은, 즉 언어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사적언어 논증은,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며 복수의 참여자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약의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로부터 지식, 그리고 앎의 문제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 앎의 문제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자신이 아는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아는 것이다. 혼자만의 앎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Foucault, 지식과 권력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의미'란, 외부의 대상을 모사함으로써 얻는 것도,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는 기호들의 망 속에서 그들의 관계에 의한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의해 주어지며 개인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취해서 사용한다. 어떤 대상도 언어를 통해 의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언어의 망이야 말로

23) 소위 '규칙 따르기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Wittgenstein이 그의 '철학적 탐구'에서 긴 지면(§143~§242)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상을 분절하여 사고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 된다. 이로부터 세계는, 그리고 주체 또한, (의미를 부여하려면) 모두 기호들의 망 또는 그것의 특정한 형태인 ‘담론(discours; discourse)’²⁴⁾ 속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어야 한다.

Foucault는 어떤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적인 조건을 분석하며, 또 시대가 바뀔 때 따라 그 담론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분석한다. Foucault에게는, 사회적 관계들과 완전히 무관한 순수한 과학도, 정치적 맥락으로 완전히 환원되는 순수한 이데올로기도 없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섞여 있는 지식(savoir) 또는 담론(discours) 뿐이다(Foucault, 1971, p.78). Foucault는 이러한 지식과 담론을 그 현실적인 역동성 속에서 분석하여 전통적인 인식론이 간과한 문제들을 이끌어 내었다.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표상(représentation)하는 과정은 인식 주체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어떤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게 되며,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선험적인 가능성의 조건들(conditions de possibilité)이 있다.²⁵⁾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은 인식이 일어나는(내재적인) ‘언어적 조건’과 그 인식의 배경이 되는(외재적인) ‘사회적 조건’이라는 두 측면을 지니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어적 조건들과 사회적 조건들이 관계를 맺는 양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은 문제되고 있는 담론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간적으로 다르며 인식이 발생하는 시대가 언제인가에 따라 시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Foucault는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변화에 따라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이 어떻게 변환되었는가를 드러내 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⁶⁾

Foucault는 사고를 가능하게 해 주며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를 ‘에피스테메(épistémè)’라고 부른다.

에피스테메는 주어진 한 시기에 인식론적 제 형상, 과학, 형식화된 체계를 발생시키는 담론적 실천의 총체를 의미한다. 에피스테메는 극히 다양한 제 과학들을 가로 지르면서 주체, 정신, 시대 등과 같이 지고한 통일성을 표현하는 인식의 한 형식이나 합리성의 한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한 시대의 제 과학을 담론적 규칙성의 수준에서 분석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의 총체이다. (Foucault, 1969, Ch.4)

Foucault(1966)는 르네상스 시대, 고전주의 시대, 근대의 에피스테메가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짐을 보임으로써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렇듯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다. 예를 들어 광기를 정의하는 이성은 그 경계선을 유지하는 기술자에게 ‘의사’라는 직책을 주며 그것을 위한 담론인 ‘정신병리학’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이 정신병리학이라는 담론이 의사와 광인을 주체와 대상으로 정의해 주는 것이므로, 결국 주체와 대상이란 담론 안에서, 담론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라고 말할

24) Foucault는 ‘discours’라는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중 가장 전통적인 의미는 논증적인 언어,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학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를 말한다(Foucault, 1966, Ch.2). 넓은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언표(énoncé)들의 집합’, 또는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기호들의 집합’ 정도의 뜻이다(Foucault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최근 국내에는 ‘담론’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화’의 뜻으로 이해되기 쉬운 ‘담화’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25) Foucault는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고고학(archéologie)이라 부른다.

26) Foucault(1971)의 ‘담론의 질서’를 번역한 이정우(1998)의 역자해설에서 인용함.

수 있다. 또한 정신병리학이라는 담론은 의사가 광인에게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정당화해 주므로, 정신병리학이라는 지식, 즉 담론 안에는 ‘권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담론 또는 지식과 권력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라는 뜻에서 Foucault는 ‘지식-권력 (savoir-pouvoi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진경, 2006, p.442). 결국 담론의 질서라는 것은, 담론 자체에 권력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담론 자체가 권력에 의해 작동되며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 맺는 글

이 땅에서 수학교육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1980~90년대, 당시의 핵심적인 화두는 ‘활동주의(activism)’였다고 말할 수 있다(우정호, 1984, p.46, 105). 즉, 수학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학문이며 그것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 재창조되는 형태로 학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학교육이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정보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기계적인 훈련만을 ‘주입’해 왔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반성이라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Piaget 등에 의해 확립된 발생적 관점의 인식론이 그 학문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갖추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활동주의를 뒷받침하는 인식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를 그 논의의 중심에 놓는다.²⁷⁾ 그것은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인식의 객

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와 같은 설명은 Kant와 Piaget의 인식론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인식의 주체와 대상만을 고려하는 인식론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역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한 설명을 포함하는 공적(公的) 인식론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구조주의, 언어학, 기호학,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이론을 통해 그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인식의 ‘주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사회적 조건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바,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의 철학적 기초를, 주체, 구조, 담론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호의 ‘의미’에 대한 구조주의적 설명은, 그것이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의 망 속에서 기호들 사이의 관계에 의한 의미작용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구조는 주체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구조적 질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체는 형성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수학 학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도, ‘주체에 의한 지식의 구성’ 이외의 다른 많은 논점들을 생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면, 학습자에게 ‘기호’로서 주어지는 수학적 개념의 ‘의미’는 어떤 기호학적 함수(semiotic function)의 의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²⁸⁾ 시니피에는 결국, 시니피앙의 연쇄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수학 개념 학습을 위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니피앙의 ‘미끄러짐’의 양태를 분석할 수도 있

27)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플라토니즘의 경우, 인식의 객관성이 비롯되는 지점이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 이데아이며, 그 이데아가 ‘실재’한다고 설명하는 관점이다.

28) 예를 들면, Santi(2011)는 다양한 표상이 갖는 동일한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를 기호학적 함수로 분석한다.

다.²⁹⁾ 또, 기호의 ‘의미’ 또는 ‘규칙’은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 안에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면, 수학 수업에서 그와 같은 참여와 상호작용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할 수도 있다.³⁰⁾ 그리고 수학적 지식을 ‘담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담론을 이루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분석할 수도 있고, 수학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수정되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분석할 수도 있다.³¹⁾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교육학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논점들을 공유하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논점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적, 인식론적 논의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이 논문이 그러한 이해에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학습과 관련한 폭넓은 담론을 생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석(2010). **무의식어로의 초대**, 김영사.
 김형효(1989).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서양근대철학회(2004). **서양 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 창비.
 우정호(1984). **수학교육학 개론**, 서울대출판부.
 우정호(2000). **수학 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서울대출판부.

이진경(2006). **철학의 외부**, 그린비.
 平林一榮(1999). **수학교육의 진보와 전망**, 수학교육학연구 9(1), pp.1~13.
 홍진곤(1999). **반영적 추상화와 조작적 수학 학습-지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eth, E. & Piaget, J.(1966). *Mathematical Epistemology and Psychology*, D. Reidel.
 Damerow, P.(1996). *Abstraction and Representation*, Kluwer.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이흥우 譯(198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Ernest, P.(1991).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Education*, Routledge.
 Foucault, M.(1966).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Foucault, M.(1969).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Foucault, M.(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譯(1998). **담론의 질서**, 서강대출판부.
 Hamlyn, D. W.(1978).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Routledge.
 Kant, I.(1781). *Kritik der reinen Vernunft*, 최재희 譯(1983).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Lacan, J.(1973).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맹정현, 이수련 譯(2008).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Piaget, J.(1968). *Le Structuralisme*. C. Maschler(trans.) (1970). *Structuralism*. Basic Books.
 Piaget, J.(1970). *Genetic Epistemology (Woodbridge Lectures at Columbia University in 1968, Trans. by E. Duckworth)*, Columbia Univ.
 Presmeg, N.(2008). *Trigonometric Connections*

29) 예를 들면, Presmeg(2008)은 기호들의 전환(conversion)에서 일어나는 해석(interpretant)의 미끄러짐을 논의한다.

30) 예를 들면, Radford & Roth(2011)는 사회와 분리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이(togetherness) 활동’하는 교실의 모델을 제시한다.

31) 예를 들면, Sfard & Avigail(2006)은 수학 학습이 개인의 담론을 수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적인 갈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rough a Semiotic Lens, in Radford, Schubring, & Seeger(Eds). *Semiotics in Mathematics Education*, Sense Publish.
- Radford, L. & Roth, W.(2011). Intercorporeality and ethical commitment, *ESM 77*, 227-245.
- Santi, G.(2011). Objectification and semiotic function, *ESM 77*, 285-311.
- Saussure, F.(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최승언 譯(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 Sfard, A. & Avigail, S.(2006). When the rules of discourse change, but nobody tells you, **수학교육 논총 제 29집**, 1-37.
- Wittgenstein, L.(1953).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이영철 譯(1994). **철학적 탐구**, 서광사.

Subject, Structure, Discourse, and the Learning of Mathematics

Hong, Jin Kon (Konkuk University)

Epistemology in which only subject and object of cognition exist can't play a role well in the society. In this paper we analyze structuralism which discusses linguistic and social conditions that make subject of cognition possible and semiologic epistemology's philosophical base with three keywords: subject, structure and discourse. Signification by the signs' relation not object of cognition and construct of subject make meaning of sign in network of signs. The construct exists before subject and subject can exist in the structural order.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learning of mathematics, this point of view makes you consider the other problems besides construction by subject.

Key Words : subject(주체), structure(구조), discourse(담론), epistemology(인식론)

논문접수 : 2012. 9. 18

논문수정 : 2012. 10. 19

심사완료 : 2012. 11. 12